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R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6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통일 3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6 번 시편 50 편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5:1-21	임필재 집사
찬 양 Anthem	“주 은혜 놀랍도다”	찬양대
설 교 Sermon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14 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통일 511)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곤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인정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 127, 합 32,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개역개정 **출5:1**)

“Afterward Moses and Aaron went to Pharaoh and said,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 (NIV **Exodus 5: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6 (주일)	6/27 (월)	6/28 (화)	6/29 (수)	6/30 (목)	7/1 (금)	7/2 (토)
	신31	신32	신33,34	수1	수2	수3	수4
본문	시119:97-120	시119:121-144	시119:145-176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사58	사59	사60	사61	사62	사63	사64
	마6	마7	마8	마9	마10	마11	마12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6/29수 오후730)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4:14-16) – 김재우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7/2토 오전630)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시87:1-7)

지난 주일(6/19)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7)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출 4:18-31)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까지, 그는 자신이 움켜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고,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까지 자세히 알려 주셨는데, (이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출424).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나 설명도 전혀 없었기에,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의 중요성**”(출426)입니다. 즉,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뜻하는 히브리어 '브리트 밀라'는 (문자적으로는) 잘라내는 언약(cut off covenant)을 뜻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징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며, (마차)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